

# 북한문학의 한국문학사 편입, 그 실태와 전망

## 통일문학사 서술 준비단계로 아직은 소개나 개관 수준에 그쳐

“왜 나는 내 젊은 열정, 또 인생을 바쳐, 발표도 안되는 학문을 해야 하는가, 왜 많은 대상 중 하필 그때의 것을 택했던 것일까.”

한 한국근대문학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의 운명을 한탄한 대목이다. KAPF와 월북·재북 작가를 연구했으니 ‘이데올로기 배제론’이라는 강한 사회적 금기 때문에 연구성과가 발표되지 못하는 쓰린 좌절감을 토로했던 것이다. 작가·시인을 일부러 혹평하는 등 검열의 완화를 모색하기도 했다는 고백에 이르러서는 “학문도 운명스러운 곳이 있다”는 발언을 적극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한국근대문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북한문학은 그렇게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북한문학은 북조선이라는 국가적 실체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북한이 ‘외국’으로 치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은 북한을 외국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북한문학사를 다뤄야 한다는 당위를 실현할 만한 자료와 방법론의 부재 때문에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 북한문학 함께다른 문학사 시도돼

그런데 지난 7, 8월 들어서 우리 문학사 연구의 뜨거운 감자인 북한문학사를 한국문학사에 ‘수용’한 저서들이 잇따라 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권영민 교수(서울대 국문과)의 「한국현대문학사」(민음사), 김윤식 교수(서울대 국문과)와 정호웅 교수(영남대 국문과)의 공저인 「한국소설사」(예하)가 그것이다. 김재홍 교수(경희대 국문과)의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시와 시학사) 역시 북한시사를 조감하고 있다. 이들 저서들은 “자극히 개괄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문학을 함께 다룬 ‘최초의 시도’이자 북한문학사 서술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문학의 한국문학사 편입이 아직까지는 문학사 정리 수준은 아니라고 저자들 스스로 그 한계를 지적한다. 북한문학사를 정리하는 마당에서라면 우선 풍부한 자료와 문학사에 대한 일정한 현재적 관점의 역사적 투사가 필요하지만 두 요소 모두 결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문학사의 연구는 문학비평의 궁극적인 귀착점에 해당”되는데,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과 평가 등의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의 문학사 서술은 애초부터 다소간의 무리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할 수

우리문학사 연구의 뜨거운 감자인

북한문학을 한국문학사에 ‘수용’한

저서들에 잇따라 출간됐다.

최초의 업적이므로 과소평가할 수도

개관의 수준이므로 과대평가할 수도

없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아직까지는 자료부족, 연구의 일천함,

문학사서술의 새로운 방법론 부재

등으로 인해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 작업은 매우 진지하고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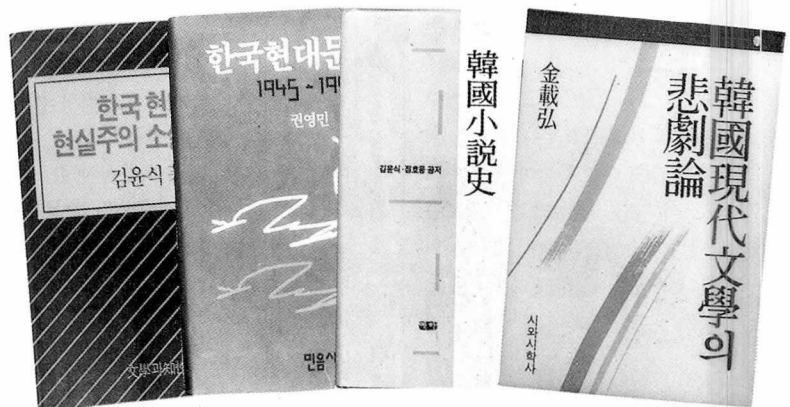
없다”는 게 학계의 주된 반응이다.

「한국현대문학사」는 해방 이후의 한국문학을 “분단시대 문학”이라 규정하고, 북한문학이 문학사 연구의 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하는 이유를 “문학사적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한다. 분단문학이란 분단논리를 극복하고 민족문화의 총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통일된 민족문학을 지향하므로 더이상 북한문학사 서술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북한의 문학을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정권의 문화정책에 의해 그 성격과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전개 양상에 차이를 드러내며,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 이념을 예술적으로 실천하고자 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에 의해 혁명성의 구현으로 바뀌어졌다”고 결론짓는다.

「한국소설사」는 “월북작가들이 북한사회에 남긴 작품들을 남한문학사와 병행하여 한자리에서 견주어야”한 이유를 두 가지 점에서 찾는다. 첫째는 “당위”, 둘째는 “통일소설사를 구축하기 위한 지적 과제”가 그것이다. 저자들은 제12장 “북한소설 개관”에서, 제목이 뜻하듯, ‘한국’ 소설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별책부록’임을 밝혀놓는다. 1. 북한소설의 출발점: 토지개혁과 전후 복구과정의 형상화, 2. 6·25문학의 이중성 등 전후문학 시기까지만을 다루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독자적인 소설사의 시발점은 토지개혁이 수행된 1946년이다. 그 이후 “소설의 내적 형식에 있어서 남쪽의 그것과 일정하게 달라진다”는 것. ‘토지



자극히 개괄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문학을 함께 다룬 문학사 저서들.

개혁 세대’는 당의 정책을 소설의 주요주제로 삼았으며 그에 따라 북한소설의 원형적 모습을 점차 형성해 나갔다.

김재홍 교수는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시를 “소락하게나마” 조명한다. 해방 이후 남북문학은 분단시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대략 1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과 대응관계를 이루면서 형성·전개되었다고 그는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시는 갈래면에서는 남한과 같이 서정시와 서사시로 대별된다. 그러나 서정시에 항일혁명시기에 창조했다는 “혁명가요”를 추가하는 것이 남한과 다른 변별점이다. 즉 “북한에서는 시와 대중가요의 가사 두 가지가 함께 묶여 ‘북한시’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형성해가고 있는 데서 장르적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

### 아직은 북한문학 소개 내지 개관 수준

이들 ‘문학사’ 책들은 통일문학론의 실마리를 “민족적 형식”에서 찾겠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민족적 형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남북이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면, 한국민족 전체의 문학으로서의 미적 가치와 기준은 바로 민족적 형식의 탐구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들 ‘문학사’ 책들에 앞서 북한문학의 주류를 이끌어온 이기영·박태원·최명익·한설야·황건 등 소설가의 작품과 이념, 사회·역사적 현실과 모더니즘·리얼리즘 사조의 궤적을 추적하여 우리 한국문학사에 편입시킨 중후한 저작으로 김윤식 교수의 「한국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문학과학지성사)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내가 연구한 것은 우리 근대문학이지 재북·월북작가가 아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연구케 된 것은 문학사의 “연속성 회복”에 있었다고 밝힌다. 연속성 회복의 첫번째 과제는 일제강점기와 남북한 각각의 국가건설 사이에 놓여있는 해방공간(1945~1948)에 대한 고찰로 그의 또다른 저서 「해방공간의 문학사론」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두번째 연속성 회복의 과제란 분단극복의 문학적 작업인 통일문학사에 대한 고찰로서 「한국현대 현실주의소설 연구」에서 정리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북한소설 속의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한 척도로 “공산주의적 인간”의 원형을 제시했다. 고귀한 인간, 자기희생에서 민족을 구하는 “성자적 인간형”에 가치평가가 놓이는 북한문학의 원천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그저 그렇군” “별것 아니군” 수준의 독해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월말경 도서출판 태학사에서 자료부족에 허덕이는 근대문학사 연구자들의 고단한 노고를 덜어줄 만한 방대한 자료집을 펴낼 예정이다. 소장학자 김재용씨가 중국·일본·러시아 등지에 산재된 자료를 수집한 「현대문학비평선집(이북편)」이 그것이다. 그는 “90년대는 북한문학 관련 자료를 전면적으로 읽는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그러한 성과 위에서 비로소 민족문학사와 통일문학사가 서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기자